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6.(금)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간선도로과	담당자	• 과장 이상현, 사무관 안재혁, 주무관 윤순규 • ☎(044)201-3891, 3894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8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·중 도로 협력 나선다…자율차 등 미래 도로정책 방향 공유 9일부터 5일간 한중도로협력회의…평창 올림픽 교통대책 성공경험도 전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일(월)부터 5일간 ‘제22회 한·중 도로 협력회의’를 개최한다.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·중 정상회담 이후 한·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도로분야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.
 - 우리 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수석대표로 26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, 중국 측은 교통운송부 공로국 쑨융홍 부국장 등 9명이 참석한다.
- 이번 회의는 2차례에 걸쳐 개최되며, 이어서 현장 시찰도 진행될 계획이다.
 - 1차 회의(10일)에서는 최근 도로분야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‘도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’에 대해 발표하고,
 - 이후 우리 측에서 한국의 축적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설명한다.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‘일대일로 사업의 현황과 계획’을 발표할 예정이다.
 - 또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주제인 ‘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대책’을 발표하여 도로건설·운영을 포함한 교통수송 분야 성공 경험을 중국 측에 전수한다.

- 2차 회의(11일)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양국의 도로시설 현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.
-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특수교 안전관리 현황과 도로 이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중국의 도로포장 관리 기술을 서로 공유한다.

< 제22회 한·중도로협력회의 의제 >

구분	공통	한국	중국	특별주제
1차	도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	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	‘일대일로’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	평창 동계올림픽 교통 대책
2차	자율주행 자동차를 대비한 도로시설	특수교 안전관리	노면상황에 대한 측정 및 대응기술	

- 아울러 종합휴게시설(행담도휴게소)로 유명한 국내 최대 사장교인 서해대교와 한국 최장의 해저터널*(연장 6.9km) 공사가 진행 중인 보령~태안 국도 건설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.

* 국도77호선 보령~태안 1공구 : (총사업비) 4,641억원, (사업기간) ‘10.12~’21.3

- 한편, 한·중 도로협력회의는 지난 1996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, 양국의 도로분야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- 수석대표인 백승근 도로국장은 “이번 협력 회의가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, 앞으로도 양국이 도로 분야 발전을 위해 상생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.”고 밝혔다.